

시설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교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 of Readiness Education for Independent Living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 Centering Around Social Adaptation and healthy Family Formation -

동국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전공
박 사 강 복 정

Dep. of Home Economics, Dongguk Univ.

Ph. D : Kang, Bog Jeong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V. 연구결과 |
|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VI. 논의 및 결론 |
| III.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의 내용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guides them to the needs of leave preparation and material methods for self-examination and social adaptation so that they may live their remaining time in residential care better, and that execute preliminary training to improve their qualities for healthy family lives in the future.

The program of this study was tested on 8 adolescents at their high school ages selected from an orphanage in Seoul. The effect of the program was determined by the quantity evaluation with a statistical analysis(ANCOVA) and also by the quality evaluation that requires interviews.

Here is the summary of the result of leave preparation program;

Firstly, the leave preparation program was effective on finding self-identity, psychological welfare and personal relationship.

Secondly, The program helped them recognize that their own personalities, growing-up circumstances and family in root influenced on their self-understanding and growth. Most of the subjects said they accepted these factors in an affirmative way.

Thirdly, the program g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views of social adaptation and family formation after leave.

주제어(Key Words): 시설청소년(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자립준비프로그램(readiness education for independent living), 사회적응(social adaption), 건강가정형성(healthy family formation)

I.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근원가족에서의 생활경험, 시설환경 부적응 등 입소당시부터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상 적절한 심리상담·치료나 가정생활지도를 받지 못한 채 약 10년-15년의 기간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라 만18세가 되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시설을 떠나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 현재(보건복지부, 2000) 아동양육시설 211곳에서 2,816명의 퇴소청소년들이 일정한 주거대책 없이 100만원 안팎의 자립정착금을 받고 퇴소하는 실정이며, 퇴소 후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13곳의 자립생활관에 237명의 시설퇴소청소년만 거주하고 있어, 시설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시설청소년의 개인적 차원에서 자립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적응의 불리함일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문제청년으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사회기능 저해, 공공 안녕 파괴, 결혼가정 형성, 국가 인력의 피해를 가져오는 등 장래의 복지수요자로 전환되어 국력을 낭비시키는 국가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시설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과 시설출신자들의 교육요구도를 조사하여 개발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강복정·이정덕, 2000a; 강복정·이정덕, 2000b)을 시설청소년들에게 직접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퇴소대상 시설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자기이해를 통하여 자아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자립준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남은 시설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미래가정생활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 건강한 가정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

육프로그램들은 요구도 조사와 프로그램 개발·수행·평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시설청소년과 시설출신자들의 교육요구도를 근거로 개발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을 시설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자기이해 및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가정형성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종합평가는 어떠한가?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특성

시설에서 보호, 성장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격형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Bowlby(1965)는 모성실조로 인하여 갖게 되는 아동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파괴적인 인간관계, ② 솔직한 느낌 노출거부, ③ 친밀감 결여, ④ 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의 부족, ⑤ 정직하지 못하고 줏대가 없는 태도, ⑥ 도벽현상, ⑦ 집중력의 결여 등이다.

시설출신자들에게는 자신이 경험한 모성상실로 인해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고, 이것은 그들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Bowlby, 1965; Hazan & Shaver, 1987). 또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건전한 애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이 형성할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isks, 1985). 강복정(1997)과 강복정·이정덕(2000a)의 연구에서는, 시설청소년들이 대부분 근원가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서 가족에 대한 원망스러움이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생활은 청소년들에게 시설증적 특성을 갖게 하고, 사회적 편견과 생활 지식에 대한 부족으로 사회생활은 물론 그들이 형성할 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신혜령(1993)은 시설아동이 대체로 부모를 가장 싫어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시설아동의 건전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직업과 사회생활에 대해 낮은 기대율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20.1%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이에 대해서도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시설에서 부모에 대한 불신, 미움 등의 감정을 가진 채 대부분 10년 이상 생활하면서 길들여진 아이들은 생존경쟁 사회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문에 자아정체감, 심리적 복지감이 낮고,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 불안해 할 수 있다.

2. 퇴소대상 시설청소년의 전환기 적응문제

아동양육시설의 퇴소대상청소년은 연대기상의 연령을 지표로써 보면 17-22세 사이의 연령구간인 성인초기를 곧 앞둔 전환단계에 포함된다(Mech, 1994).

시설청소년들은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며,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시설에서 성장하면서 형성된 성격요인과 적절한 준비 없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상황적 요인이 결합되어 높은 의존성을 보인다. 또한 시설에 있는 동안 이들에게 가족·지역사회의 지원이 부족하고, 퇴소 이후에는 단절되며 100만원 안팎의 자립정착금은 이들이 자립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액수이다.

시설청소년은 가정, 친척, 이웃 등의 사회체계의 원활한 교류가 없으므로 직업선택에 있어 편협한 태도를 취하기 쉽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고, 교육기회도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자들이며, 심리적으로 의욕도 낮고 부정적이며 당장에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직업선택은 더욱 어려워진다. 퇴소 후 그들은 영세민 또는 저소득계층으로 흡수되기 쉽고, 불안정한 직업으로 인한 잦은 이직은 이들의 생활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여 사회문제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더욱이 3D(Dirty, Dangerous, Difficult)의 기피현상은 시설청소년들을 유흥업소와 같은 유해환경과 더욱 가깝게 하여 범죄나 비행에 감염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남윤희, 1994).

특히, 시설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시설이라는 환경도 포함되겠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이들이 경험해 온 원하지 않던 삶의 위기들이다.

근원가족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가족의 정서적 건강수준이란 근원가족과 대인관계에 필요한 정서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결혼적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uillard, 1990; Fine, 1988).

강복정·이정덕(2000a)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출신자들은 가족이 없는 설움을 경험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회생활, 이성교제, 배우자선택 과정에서 이성애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요약하면, 가족원이 서로에 대해 존중·헌신·친밀하고, 삶의 지표로서 종교를 지향하며, 좋은 의사소통향을 위하여 노력하며, 가족의 변화에 긍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능력있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서병숙, 1994; 어은주, 1996; 유영주, 1991; 윤진, 1983; Barnhill, 1979; Bloom, 1985; Curran, 1983; Olson & DeFrain, 1994; Otto, 1962; Stinnett, 1979. etc).

따라서, 시설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이들의 개인적·사회적 장애요인과 부적응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시설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의의

최근 우리나라의 요보호 아동 발생유형에 따른

보호내용을 보면, 시설보호가 61%로 가장 많고, 그 수가 약 2만여명에 달하고(보건복지부, 2000), 이들을 자립능력이 미숙한 채로 사회로 배출하는 것은 또다시 사회보호대상자로 만들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자가 5년간에 걸쳐 개발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예비실시(강복정·이정덕, 2000b)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1) 자기이해와 자신감의 향상

시설청소년들은 단체생활시설에 사는 동안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가족과 떨어져서 산다는 이유로 위축되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미래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생활태도와 학업태도 등에 잘못된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2) 근원가족과의 관계 개선과 미래 가정형성관의 변화

대다수 시설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고, 부모나 친척과 왕래하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가족에 대해 쉽게 개방하지 못하고 부모에 대해 원망하며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설청소년들은 가족화를 어렵게 그리고, 참여자들의 '가족화' 설명을 들으면서 가족에 대한 아픔이 서로에게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서 보고싶고 용서하고 싶다고 하였다.

한편 시설청소년들은 가정불화,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정해체, 빈곤 등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족생활의 즐거움, 배우자선택의 중요성, 자녀교육, 가족문제의 해결 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설청소년들은 올바른 배우자 선택, 건강한 가정생활 등에 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3) 자립준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시설청소년의 자립은 퇴소 후 취업, 주거확보, 사회적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가능한데, 시설청소년들은 시설에서 나간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시설출신 선배들의 사례를 듣고 느껴보면서, 진로준비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시설을 퇴소하기 전까지 시설종사자들과의 관계향상과 사회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시설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특성에 맞는 직업선택과 의타심을 버리고 책임감과 강한 정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훈련을 실시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III.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본 연구에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설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은 시설청소년의 가족상 연구(1996년-1997년), 시설출신자 및 시설청소년의 교육요구도 조사(1998년-1999년), 예비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1999년-2000년 1월),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과 안면타당도 검사(2000년 2월-2000년 12월)등 5년 간에 걸쳐 개발되었다.

또, 이 프로그램은 교육자와 학습자, 학습자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학습의 원리와 참여교육의 원리(정지웅·김지자, 1986; 차갑부, 1995)를 반영하여, 대부분의 연구들(김동위, 1996; 이시연, 1995; 이혜숙, 1992; Hennon & Arcus, 1993; Small & Eastman, 1991)이 10명 이내가 적정인원임을 지적하고 있어 8명으로 한정하였다.

시설출신자 및 시설청소년들의 교육요구도를 조사하고, 시설생활 및 생활자들의 대표적인 특성들을 근거로 사회적 및 건강가정형성을 중심으로한 자립준비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표 1).

<표 1>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내용 요약표

단계	회기	내 용	비 고
도입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의의 및 내용 소개, 시설출신 선배들의 '추천의 말' 듣기, 참여자 소개, 참여동기 나누기	프로그램실
나의 탐색	2	나를 찾아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 소개하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시설생활에 있어있는 현재 상태를 돌아보게 함.	프로그램실
	3	시설생활의 장·단점: 일반가정 아이들과 시설생활을 비교해봄으로써 시설생활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살리고, 자신도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함.	프로그램실
	4	나와 타인의 이해: 자기 자신과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식구들의 성격특성을 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함.	프로그램실
	5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MBTI검사결과를 이용하여 시설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줌.	프로그램실
성 이야기	6	아름다운 성 이야기: 시설의 특성상 어른들의 감독이 불충분하여 무차별적으로 인식한 성지식을 Test해보고 올바른 성을 알게함.	프로그램실
	7	성에 관한 문제: 성역할 태도, 성폭력과 미혼모, 낙태 문제에 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성인의 통제가 거의 무방비한 시설생활에서의 성관련 문제 탐색.	프로그램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8	이성교제는 왜 필요한가요?: 우정과 10대의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이전의 이성교제의 차이점을 이해시키고, 이성교제의 필요성과 주의사항, 에티켓 등을 학습함.	프로그램실
	9	나의 성장사와 나의 가족 돌아보기: 자신의 생애곡선 그리기와 가족화를 통해 가족상을 표출 시킴으로써 근원가족에 대한 미운 감정과 그리운 감정을 개방하게 함.	프로그램실
	10	건강한 가정을 꿈꾸며: 시설에서 생활했다라도 누구나 건강한 가정을 형성해야 사회가 안정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미래 자신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추구하게 하며, 건강한 생활을 위해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	프로그램실
	11	행복한 결혼의 필수조건: 올바른 배우자 선택을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함. 또, 부모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승낙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갈등을 겪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함.	프로그램실
	12	미래 가족계획 세우기: 신혼기에서 노후기까지의 가족계획을 통해 현재 자신의 경제 개념을 되돌아보게 하고, 퇴소 이전의 자신의 진로준비, 생활태도, 가치관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함.	프로그램실
	13	가족문제의 대처와 해결: 시설에서 생활하기 전에 경험했던 가족문제나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그 영향이 미래 자신의 가정에까지 미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함.	프로그램실
	14	시설출신 선배와의 만남(가정방문): 자신들과 같은 생활환경에서 성장하고, 퇴소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시설출신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건강한 퇴소를 위한 준비가 미래 가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직접 듣게 함.	서울시 서초구 포이동
	15	건강한 가정 방문: 가족 건강도가 높은 가정을 방문하여 자연스러운 가정환경을 느끼게 함.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교회 전도사님 대)	봉천동
나의 다짐	16	의사소통 훈련: 보육원 내에서의 생활은 많은 아동들이 한꺼번에 생활하므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나 상호교환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의사소통에 익숙해진 자신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 보육원 생활에서 자기주장이 지나치거나 부족하도록 학습된 자신의 의사소통 습관을 조절하고, 웃 어른들에 대한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함.	산정호수 한화콘도
	17	나의 인생설계·가족에게 편지쓰기: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함.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감정을 조금 더 심화있게 표현해 봄으로써 막연한 감정들을 정리하게 함.	한화콘도
종결	18	마무리: 프로그램 전과정 동안의 느낀 점과 새로운, 변화된, 변화시킬 태도의 진술, 집단원 상호간의 피드백, 축복의식 및 이별식.	한화콘도

IV.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는 질적조사와 양적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양적조사를 위해서는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실험설계'¹⁾(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하였다(채서일, 1996). 실험집단은 서울시 K구 A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을 실험대상자 16명 중 무작위추출하여 8명의 사례들로 구성하고,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동일한 상황²⁾에 있는 나머지 8명으로 구성하였다.

2. 측정도구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K구 고등학교 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검사지를 배부한 후 120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삼아 통계처리를 하였고, 신뢰도는 다음 각 척도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아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에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하위영역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이다. 이 척도의 Cronbach=.876이었다

2) 심리적 복지감 척도: Umberson(1989)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1998년에 사용한 송말희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 중 자신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내용을 담은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이다. 이 척도의 Cronbach=.7607이었다

3) 대인관계 변화 척도(RCS): Schlein과 Guemey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문선모가 번안하여 전석균(199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만족감, 의사소통, 긴외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변화가 긍정적으로 된 것이다. 이 척도의 Cronbach=.8090이었다.

4) 가족건강도: 어은주(1996)가 현가족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도가 높은 것이다. 하위영역으로는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간의 몰입, 가족구성원의 적응력, 가족 가치관으로 구성되었고, 총3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척도의 Cronbach=.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건강한 가정 방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가족건강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는 5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170점만점에 149점, 130점, 123점, 122점, 119점으로 나타나 1순위가정을 방문하였다.

3. 자료처리

1) 질적연구분석

프로그램 실제 참여자인 실험대상의 내적변화과정과 주관적 프로그램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기간동안 수시로 면접하였고, 종료직후와 1개월 후 다시 면접하였다.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들은 Strauss와 Corbin(1990)이 근거이론적 접근법(Grounded Theory Approach)³⁾에서 제시한 개방적 부호화(open coding)⁴⁾과정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2) 자아정체감, 심리적복지감, 대인관계변화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분석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 1) 한 집단에는 실험변수를 가하고(실험집단), 나머지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변수를 가하지 않는(통제집단)방법이다.
- 2) 입소시기와 가족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타시설의 청소년들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임.
- 3) 근거이론적 접근법이란 "하나의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도출된 경험에 근거한 이론을 전개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사용하는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개방적 부호화는 자료의 자세한 검토를 위해 현상을 명명하고 범주화하는 것이다.
- 4) Strauss와 Corbin(1990)에 의하면 개방적 부호화를 위한 방식으로는 먼저 표면적인 의미(Line-by-Line)분석으로 면접이나 관찰내용을 분석하기, 둘째, 문장이나 단락을 부호화하기, 셋째, 전체기록이나 관찰, 면접을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면접과 관찰내용을 분석하고 난 후 문장이나 단락을 부호화 하는 방법으로 명명하고 범주화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자아정체감, 심리적복
 지감, 대인관계변화 검사를 프로그램 실시 전과 프
 로그램 종료 1개월 후에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를 프
 로그램 종료 직후에 할 경우 내재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척도점사의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프로그램 종료 1개월 후에
 검사하게 되었다. 자료처리를 위하여 SAS프로그램
 을 사용하였고,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
 변량분석(ANCOVA)를 실시하였다.

높은 건강가정방문(15회),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16회부터 18회까지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실시과정에서 현재 보육원에 근무하는
 상담사와 아동·가족학전공 박사과정 수료자 2명이
 보조자로 참여하였고, 본 프로그램의 교육자인 연구
 자는 프로그램을 개발·실시·분석하기 위해 가족
 상담사, 가족생활교육사, MBTI, 아동발달전문가 등
 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4. 실시절차

본 프로그램은 2001년 1월 7부터 2001년 2월 28일
 까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13회 실시되었고,
 시설출신자 가정방문(14회)과 가족건강도 점수가

V. 연구결과

1.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시 K보육원

<표 2>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입소시기	가족관계	입소동기 및 가족사항	생활태도
사례 A 고1, 여	97. 5 (12세)	동생(동거) 모와 연락	부가 90년 심장마비로 사망 후 모가 바람나 동생과 유기됨. 모가 모르는 사이에 고모가 입소시킴.	생각이 건전하고 마음이 따뜻함.
사례 B 고1, 여	2000. 2 (16세)	연고자 있으나 연락 전혀안됨	모가 임신한 상태에서 호적상 부와 결혼하여 출산. 이 혼 후 모와 같이 살다가 94년 모의 자살로 모계쪽 친 척집을 전전. 중학교 입학 후 교육비 부담 및 이모들 의 양육형편에 의해 입소.	다정다감한 성격. 그동안 의 생활에서 상처가 많아 다소 정서적 심리적 안정 이 필요함.
사례 C 고3, 여	93. 2 (11세)	연고자 연락안됨	모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길러움. 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모의 친구분 집에서 살다가 입소됨.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성 실히 처리.
사례 D 고1, 여	92. 4 (8세)	친척	부모가 동거 중에 출생하였고, 모가 결혼식을 올려달 라고 하였으나 부는 경제적사정으로 거절하자 모가출 후 부는 알콜중독으로 사망.	매사에 적극적.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은 무슨 일이 라도 받아냄.
사례 E 고2, 남	88. 7 (5세)	무연고	모가 미용실에 아이를 맡겨두고 가버림. 아동의 옷 호 주머니에 생년월일과 이름이 적힌 쪽지가 있었음.	내성적인 성격에 자기 마 음을 표현하지 않음.
사례 F 고2, 남	93. 8 (10세)	누나(동거), 할머니, 삼촌	모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 아 이혼, 할머니의 병환으로 양육 어려움, 아이들끼리 밥해먹고 학교에 다녔으며 부는 형편이 안되어 입소	평상시 대인관계가 원만 하지만 주로 집안에서 지 내는 시간이 많음.
사례 G 고2, 남	88. 6 (5세)	할머니, 큰아버지연락	영아원에서 전원됨. 부모나 가족관계를 전혀 아는 바 가 없었으나 TV프로그램에 나가서 연고자를 찾게 됨	내성적, 축구를 매우 좋아 함.
사례 H 고3, 남	94. 9 (12세)	연락 안됨	아동상담소에서 의뢰됨. 부모는 생존하는 듯하고 사례 H가 출생할 무렵 전처 소생의 딸과 마찰이 심하여 이 혼을 고려하던 상태였음. 그 후 부부사이엔 불신감이 커져 갔으며 친모가 친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며 친부는 재산을 노란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 고소하여 재판. 그후 부와 모가 차례로 행방불명 됨.	밝고 명랑한 성격이며, 어 떤 환경이든 잘 적응하는 편임. 집에 있는 시간보다 는 밖에 나가서 다른 친 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음.

학생들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분석

1)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자기 이해 및 성장에 미친 영향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에서 우선적 관심을 둔 것은 이들이 가족붕괴의 경험과 부모에 대한 고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들을 줄이고,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1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의 자기이해 및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아탐색, 시설생활의 이해, 근원가족의 이해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변화는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1) 관찰 및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변화

① 자아탐색

우리는 거의 매일 집에서 공부는 안하고, 컴퓨터로 오락만 주로하고 별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식당 아니면 자기네 방에서 잠을 자요. 집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만 있죠. 신앙생활도 하기 귀찮을 때가 많아요.(사례 A, B, C, D, E, F, G, H)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같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도 고아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우리 원장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 B)

어려운 상황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동안 신세한탄만 했던 점이 후회되요.(사례 E)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적응과 건전한 성격의 발달 그리고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설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무관심했던 상태에서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함으로

써 자신도 앞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무묘한 일상생활태도에 대해 반성하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생활태도를 개선시키 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다. MBTI검사를 하면서 사람마다 가치관과 지각,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② 시설생활의 이해

시설생활을 하는 '나는 고아이며 돈이 없고 빨래를 내가 알아서 하고 설거지나 청소를 해야하고 물건을 사고나면 영수증을 받아서 총무님께 내야 해요. 외출할 때나 들어와서 이름을 적어야 하고, 식구가 많고 단체활동을 주로 하잖아요, 하지만, 일반가정 친구들은 엄마·아빠랑 단란하게 살고, 용돈이 필요하면 부모님께 받을 수 있고, 시간이 자유롭고, 설거지나 빨래는 하지 않죠.(사례 A, B, C, D, E, F, G, H)

아이들이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질 때나 다른 아이들이 많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면 짜증나요. 하지만, 보육원 생활도 자신만 똑바로 처신하면 별 문제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사례 A)

나는 혼자 다 알아서 해결해야하지만 친구들은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죠.(사례 H)

위 사례들에서는 주로 시설생활들의 불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5년 간의 연구활동을 집약하여 구성한 '시설생활의 좋은점'에 대한 활동자료를 제시했을 때 모든 참여자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입소시부터 퇴소할 때까지 시설생활의 장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수의 시설퇴소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근원가족의 이해

엄마가 바람이 났는데 고모가 우리를 키우겠다고 데려갔어요. 망할놈의 고모가 우리를 버린거예요... SBS 방송에 나가서 엄마와 만났죠. 엄마만 찾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왜 내가 동생에게 잘해줘야되는지 의심이 갈 때가 많아요. 사실 나도 어리잖아요.(사례 A)

어렸을 때는 저를 버린 엄마가 미웠어요. 다른 아이들 중에 부모하고 연락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학교친구들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잘해주실 때 엄마가 보고싶죠. ... 교육받으면서 생각이 많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사례 D)

나를 버린 부모님은 찾기 싫어요(사례 E)

옛날 생각하면 부모님이 싸운 것만 생각이 나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누나가 울면 따라서 울고, 집 밖에 나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가족이 더 그리워져요. 엄마 아빠가 있긴 한데 요즘 연락이 끊겨서 미치겠어요. ... 이제 나도 커가니까 부모님을 이해해야죠.(사례 F)

만약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한번쯤 만나고 싶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요. 나를 버린 것이 후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요. 그냥 부모로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살 거처를 마련해 준다든지 돈을 보태 준다든지. 같이 산다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산다고 해도 내가 거절하고 싶어요...(사례 H)

가족화를 그리는 프로그램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순간적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일단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더 많이 떠올라 그림을 그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말로 표현하는 편이 더 쉽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시설청소년들이 시설입소당시

에 심리치료나 시설생활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출신 선배들의 사례는 자신들의 가족관이 미래가정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절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감정을 친구들에게 개방하고 서로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인 가족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척도를 통해 분석한 변화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자아정체감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별 검사를 실시 시기별 사전·사후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3>에 나타났듯이 자아정체감에 대한 교육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평균은 72.75과 74.75로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후점수는 96.25와 68.7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를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집단간 교육의 효과는 F값 451.14(p < .0001)로 상당히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전점수의 효과는 P < .0001로 사

<표 3> 자아정체감의 집단·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M/SD)	사후(M/SD)	p	사전(M/SD)	사후(M/SD)	p
자아정체감	72.75(8.97)	96.25(6.73)	.000	74.75(8.10)	68.75(9.00)	.007

<표 4> 자아정체감의 공변량 분석

요 인		자유도	전체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p
자아 정체감 (전체)	모형	3	3829.54	1276.51	190.38	0.0001
	집단	1	3025.00	3025.00	451.14	0.0001
	사전점수	1	763.89	763.89	113.92	0.0001
	상호작용	1	40.65	40.65	6.06	0.0299
	오차	12	80.46	6.71		
	전체	15	3910.00			

후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놓아서 모형을 설정한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가정형성관에 미친 영향

아동복지법 제11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에 의하여 연 간 약 3,000명의 시설청소년들이 퇴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 적응훈련의 적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 2을 중심으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사회적응 및 가정형성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인관계변화는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1) 관찰 및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변화

① 진로준비

'자기소개서'를 썼던 것이 의미 있었고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돈이 없으니까 학원에 못 가서 아쉬워요. 내 성격유형이 ENTP이예요.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당장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현실적인 것을 먼저 해야한다는 것이 좀 속상해요. 돈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사례 B)

진로에 대한 고민은 누구보다 제 자신이 많이 하죠. 부모님이 옆에 계셨으면 "이런 것을 준비해라"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군대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현재는 자동차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잘못 간 것 같아요. 형들 중에 자격증도 따고 직장도 다니지만 어떻게 해서 자격증 준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격유형이 ESTJ인데 거기에 나온 직업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이제 2년 뒤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답답해요.(사례 F)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결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진로준비 또한 미흡한 상태이다. 막연히 고민만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퇴소할 시기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나중으로 미루고 있었다. 또,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를 생각을 하면서도 대부분이 그 동안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아왔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

로준비고 막상 닥친 현실임을 깨닫고는 힘들어했다. 시설출신 선배가정을 방문 했을 때, 선배님께서

"내가 꽃집(보육원을 일컫는 말)에서 나온 지 벌써 20년이 되어 가는데 사회에 첫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 나는 먹고 자는 것이 가장 문제였으니까 일단 먹는 쪽인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자장면 가게였어. 내 동기는 20살 때 웨이터로 취직했는데 아직도 웨이터로 일해. 비참하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 하긴 나도 너희들 나이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

라고 얘기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MBTI검사를 통해서 진로상담을 받은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사례 F의 경우 상담하면서는 자신이 공부를 너무 안해서 아직도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이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연구자와 상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평가회에서 사례 F는 "선생님하고 이야기 한 후에 계속 생각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제가 사는 길 같아요"라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결정적인 시기로서 이 시기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여생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특히 시설청소년들은 퇴소 후 곧바로 직업을 가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으므로 직업 준비의 필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겠다.

② 거처 문제

형(사례 E)이 먼저 나가서 집을 구하면 1년 뒤에 내가 가겠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걱정이 되네요. 그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친척들 과도 연락이 안되고, 막막해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거처를 생각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사례 D)

누나가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지만, 부모님과 연락이 전혀 안되니까 막막하고 거처가 여전히 걱정돼요.(사례 F)

일단 거처가 해결되어야 하나 큰아버지집에 살면서 돈을 모을 생각이예요.(사례 G)

대학에 들어가면 여기에 살아도 되니까 걱정이 없죠.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서 자취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H)

모든 참여자들이 퇴소 후 거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있었고, 선배들이 다 나가 사니까 어떻게든 되리라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거처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퇴소를 1년 남긴 사례 C와 사례 H도 거처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사례 C는 프로그램과정 동안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학교에서 취직을 시켜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립생활관에 가는 것이 거의 명확해졌다.

시설청소년들은 퇴소하여 다시 자립생활관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자립생활관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지난 3년간 자립생활관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자립생활관은 보육원 생활과 달리 거의 모든 생활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로웠다.

③ 배우자선택 및 결혼준비

내 배우자는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나도 친밀감, 헌신, 열정이 모두 갖춰진 성숙한 사랑을 할 것이고, 나를 예뻐해주는 사람과 결혼할거예요. 아까 본 비디오 내용은 정말 짜증났어요. 뉴시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면서 결혼승낙은 고아라는 것 때문에 안해주다니 왜 저래요?... 선배들의 사례에도 고아라는 것 때문에 결혼할 때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집에 시집 안갈거예요. 절대로...(사례 B)

성교육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설명이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웃도 잘입고, 재미있는 여자가 좋아요. '달콤한 신부'라는 비디오 내용이 정말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하더라고요. 부모님 없는 것이 내탓인가요?(사례 H)

배우자의 선택조건으로 남자 참여자들은 돈이 많고, 이쁘고, 귀엽고, 착한 것은 대부분 공통사항이었

다. 사례 F의 경우는 모가 자신들을 잘 돌봐주지 않고, 이혼하여 집을 나가 버렸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배우자상을 원하고 있었다.

사례들의 대부분은 성숙한 사랑과 결혼의 의미, 혼전 순결의 중요성, 성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먼저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④ 가족생활 및 예절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대부분 버릇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많이 배우게 되었죠. 특히 결혼해서 어른을 대하는 방법요. 제가 의사소통에서 남의 말을 잘 듣기는 하는데 전달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요. (사례 A)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어른들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해요... 의사소통이나 가족적응 등을 배우면서 가족 모두가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자신은 없지만 아이를 낳으면 저처럼 고아원에는 절대 보내지 않을거예요.(사례 B)

우리가 갔던 가정집이 알고 보니 제 중학교 친구 집이었잖아요. 그 친구는 예의도 바르구요, 부모님을 보니까 부러웠어요.(사례 D)

'가족생활주기'와 '발달과업'을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 돈에 대한 계획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는 용돈이 별로 없잖아요. 돈이 생기면 금방 다 써버려요. (사례 E, F)

처음에 '건강한 가정'을 방문한다고 해서 귀찮게 생각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끼리 서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사례 H)

의사소통훈련활동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적극적 경청'과 'I-message 전달하기', '긍정적 표현하기'가 어려우면서도 재미있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건강한 가정'을 방문하면서도 느꼈지만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이는 또래 및 어린 동생들에게는 거의 명령식으로 얘기하고, 형과 언니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시설생활에서 의사소통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생활에 있어서 예절, 가족규칙, 성역할,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학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용돈관리를 스스로 하면서 규모 없이 사용하는 이들에게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은 사회생활 및 미래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⑤ 미래 가족생활에서의 가족문제에 대한 가치관 형성

이 집에 오기 전까지 일곱 번 집을 옮겨다니면서 느낀 것은 부모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예요. 자주 싸우게 되니까요. 엄마가 어린 내가 보는 앞에서 자살했어요. 너무 어린나이에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지혜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문제는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사례 B)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돈이 없거나 가족이 모여 살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버려지는 것 같아요.(사례 F)

사례 F는 '나에게는 많은 꿈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꿈은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모가 이혼하고, 어렵게 살았던 기억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이 가정의 해체 과정이나 부모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문제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2) 척도를 통해 분석한 변화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대인관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별 검사를 실시 시기별 사전·사후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5〉에 나타났듯이 대인관계변화에 대한 교육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평균은 71.00과 73.13로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후점수는 92.25와 75.7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변화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를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표 6〉와 같이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인관계변화에 대한 집단간 교육의 효과는 F값 101.34($p < .0001$)로 상당히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전점수의 효과는 $P < .0008$ 로 사후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놓아서 모형을 설정한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 3에 따라 참여자들의 프로

〈표 5〉 대인관계변화의 집단·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M/SD)	사후(M/SD)	p	사전(M/SD)	사후(M/SD)	p
대인관계변화	71.00(5.58)	92.25(4.40)	.000	73.13(4.55)	75.75(5.50)	.069

〈표 6〉 대인관계변화의 공변량 분석

요 인	자유도	전체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p	
대인관계 변화 (전체)	모형	3	1307.05	435.68	40.54	0.0001
	집단	1	1089.00	1089.00	101.34	0.0001
	사전점수	1	210.30	210.30	19.57	0.0008
	상호작용	1	7.74	7.74	0.72	0.4126
	오차	12	128.95	10.75		
	전체	15	1436.00			

그램평가를 분석하여 추후 연구나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종합평가는 면접과 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후 심리적복지감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면접을 통한 종합평가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다양했으나 '자신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갖기 위해 참여한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다. 또, 결혼과 가족의 이해·이성교제,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이 모든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관적 흥미정도는 모두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퇴소 후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처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었고 다음이 가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에게 도움된 정도를 알아보았다.

각 문항의 합산점수를 만점40점(8명 5점 =40점)에서 참여자들의 평균이 30점으로 나타나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시설청소년들에게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퇴소 후의 생활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의 점수가 두번째로 높았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진행 초기에 비해 프로그램 종료시에는 보육원 생활의 장점을 많이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동여부에 따라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앞서 이미 서술하였다.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참여자들의 느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랜 기간동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것이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우리들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사례 D, E, F, H).

우리가 처음에 말을 잘 안들으면 대체로 포기하고 가버리는 후원자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같이 여기에 매일 사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없었어요. 한명씩 찾아다니면서 상담해주신 것도 고맙구요(사례 G, H)

원래 같이 살던 아이들과 오랜 기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따분한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하실 때에는 다른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사례 H).

교육자의 역할, 교육시간 및 기간, 교육내용, 방법

<표 7> 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에게 도움된 정도

	문항내용	점수합/만점
1.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30/40
2.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35/40
3.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웠다.	33/40
4.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25/40
5.	친구에게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8/40
6.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수 있게 되었다.	30/40
7.	나의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25/40
8.	보육원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4/40
9.	퇴소 후 생활을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6/40
10.	자립준비에 확신이 생겼다.	27/40
11.	나도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	34/40
12.	가족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3/40
평균		30/40

및 참여자 구성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위와 같이 평가하였으며, 이것은 추후 프로그램 적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척도를 통해 분석한 변화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심리적복지감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별 검사를 실시 시기별 사전·사후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8〉에 나타났듯이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교육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평균은 37.00과 35.88로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후점수는 58.25와 36.2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설청소년의 심리적복지감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를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표 9〉와 같이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집단간 교육의 효과는 F값 209.85($p < .0001$)로 상당히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전점수의 효과는 $P < .0059$ 로 사후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놓아서 모형을 설정한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퇴소대상 시설청소년(고등학교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올바른 자기 이해를 돕고 나아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들이 남은 시설생활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자아성찰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자립준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지도하는 한편, 미래가정생활을 위한 예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질함양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 효과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은 시설청소년들의 자기이해 및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시설청소년들에게 있어 자기이해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자신의 성격, 양육환경, 근원가족 등임을 깨닫게 한 것이며, 대부분이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1개월 후 추후면접은 시설청소년의 생활태도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둘째,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은 시설청소년들이 퇴소 후 사회적응 및 가정형성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프로그램참여대상자들의 개별면접을 분

〈표 8〉 심리적복지감의 집단·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M/SD)	사후(M/SD)	p	사전(M/SD)	사후(M/SD)	p
심리적복지감	37.00(3.78)	58.25(3.37)	.000	35.88(5.41)	36.25(4.40)	.351

〈표 9〉 심리적복지감의 공변량 분석

요 인	자유도	전체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p	
심리적 복지감	모형	3	2040.29	680.10	73.72	0.0001
	집단	1	1936.00	1936.00	209.85	0.0001
	사전점수	1	103.05	103.05	11.17	0.0059
	상호작용	1	1.24	1.24	0.13	0.7200
	오차	12	110.71	9.23		
	전체	15	2151.00			

석한 결과 '퇴소 후 생활을 깊이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는 현재의 아동양육시설보호서비스가 퇴소 후 생활에 대한 지도와 시설청소년의 가족관계 회복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립준비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시설생활의 장·단점', '자신과 일반가정청소년의 이해', '진로탐색', '시설청소년의 성장사와 가족이해', '퇴소 후 사회생활과 미래 가족형성에 대한 이해', '시설출신 선배와의 만남',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 등의 내용들은 앞으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들이다. 특히 시설출신자들과 시설청소년들과의 만남이 아동양육시설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배들의 퇴소 후 주거마련, 직장생활, 가족생활 등의 삶의 경험은 시설청소년들에게 어느 무엇보다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의 아동양육시설정책에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아정체감, 심리적복지감, 대인관계 변화에 대해 측정도구를 이용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는 집단 간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겨울방학 전 기간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참여자들과 많은 상담을 할 수 있었고, 새학년을 앞두고 새로운 경험과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심리적복지감,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조사대상자 수가 너무 적다는 제한점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퇴소대상 아동양육시설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1회의 상담으로만 끝나는 시설입소과정을 수정하여 전문상담기관에서 입소아동이 근원 가족과의 분리 후 시설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치료를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복지법과 기타 관련법령상에 시설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수립 및 시설청소년들의 내적·외적 특성들을 고려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이 시설에서 토착화될 수 있도록 시설장 및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양육시설 내에 전문상담사 및 퇴소자 전담직원 제도를 마련하여 퇴소대상 청소년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가족연계프로그램 및 가족지원 강화프로그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퇴소자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

강복정(1997). 시설청소년의 가족상에 관한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복정, 이정덕(2000a). 시설청소년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연구-건강가족적 관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한국가족관계학회, 5(1), 153-182.

강복정, 이정덕(2000b). 시설청소년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논문집, 30, 541-568.

김동위(1996). 성인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남윤희(1994). 육아시설 퇴소연장아동의 자립에 있어서 자립생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아청(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5(1), 140-162.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46.

서병숙(1994).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정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75-287.

송말희(1998). 중년기주부대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혜령(1993). 시설아동의 동일시 대상과 자아정체

- 감에 관한 연구-육아시설의 청소년기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논문집, 16, 207-243.
- 이은주(1996). 한국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유영주(1991). 건강가정: 건전 가정육성을 위한 가정복지 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4.
- 윤진(1983).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부부와 자녀 및 노부모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연세대.
- 이시연(1995).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 자녀를 둔 중년기 부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1992). 도시 중년주부들의 위기감과 학습욕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석균(1994).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웅, 김지자(1986). 사회교육학개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 차갑부(1995). 성인교육방법론. 서울: 양서원.
- 채서일(1996).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 한국청소년연구원(1991). 육아시설퇴소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당사자의 의식과 욕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원. 겨울
- Banhill, L.R. (1979). Healthy family system. *Family Coordinator*, 28, 94-100.
- Bloom, B.L. (1985). Factor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 225-239.
- Bowlby, J. (1965).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2nd ed.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 Couillard, G.C (1990).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of-orig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Curran, D.R. (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NY: Ballentine Books.
- Fine, M (1988).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health on family of origin to levels of state and trait anxiety. *Family Therapy*, 15.
- Hazan, C. and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Annals of Child Development*.
- Hennon, C. B. & Arcus, M. E. (1993). Life-span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relations: Challenges for the future*. ed. by Brubaker, T.H.SAGE Publications.
- Mech, Edmund, V. (1994). Foster youth in transition: Research perspectives on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Childwelfare*. Vol. LXXIII
- Risks, M. (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Attachment across generation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eds. I. Bretherton and E. Wate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 209).
- Olson, D & DeFrain, J. (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Otto, H.A. (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 Small, S.A. & Eastman, G. (1991). Rearing adolescents in contemporary society: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sponsibilities and needs of parents. *Family Relations*, 40, 455-462.
- Stinnett, N. (1979). Strengtheni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 13.
- Strauss, A.,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 Umberson, D. (1989). Parenting and well-being. *J. of Family Issues*, 10(4), 427-439.